**Ensemble synergy Deep Active learning**

**: With Coreset, pseudo labeling and BNN**

GSDS 석사재학 20224314

강현구

최근Deep learning(이하 DL)모델은 많은 양의 Labeled Data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모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Labeling에 필요한 Human resource 또한 비례하여 Labeling Cost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beling 했을 때 모델 학습에 효과적인 Unlabeled Data를 Sampling을 하는 Active learning(이하 AL)은 Labeling cost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서 DL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Active learning를 적용하고자 하는 Deep Active learning(이하 DAL)이 부각된다.

DAL에서 1개의 unlabeled 데이터를 Sampling 하는 것은 모델 학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Batch단위로 Sampling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DAL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는 'Insufficient data for labeled samples' 이다. 따라서 Labeled data 외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고려하여 적은 양의 Labeled 데이터만으로도 효율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Batch sampling의 주요 연구 동향은 크게 3가지, 1) Uncertainty-based and Hybrid Query Methods, 2) Deep Bayesian Active learning(이하 DBAL) Methods, 3) Density Based Methods가 있다(Ren et al., 2021). 첫번째 방식은Traditional 모델(ex- SVM, KNN)을 통해 uncertainty를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Sampling한다. 하지만 traditional 방식이 모델의 uncertainty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DBAL은 Bayesian Neural Network(이하 BNN)을 통해 모델의 Uncertainty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Density Based method는 Original dataset의 feature space의 분포를 고려하여 Sampling 하며, 대표적으로 Core set(Sener & Savarese, 2017)가 있다. 한편 Labeled Data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DL방법을 활용한다. 예로 들어 Cost-Effective Active learning(CEAL)(Wang, Zhang, Li, Zhang, & Lin, 2016)에서는 self-paced learning을 통해 CNN과 Batch sampling 방식간 inconsistency를 해소하여 같이 학습될 수 있도록 했으며, Pseudo label을 활용하여 Labeled Data의 수를 늘렸다. 또한 Weighted Incremental Dictionary Learning(WI-DL)(Liu, Zhang, & Eom, 2016)은 Sparse representation을 통해 부족한 Labeled Data를 대체했다. 그리고 Generative Adversarial Active Learning(GAAL)(Zhu & Bento, 2017)에서는 GAN 모델을 활용하여 정보가 많은 sample들을 만들었다.

Batch sampling은 학습 모델의 성능에 의존한다. 따라서 Data expansion을 통한 학습 모델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Batch Sampling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었으나, 각 방법 간의 관련성 및 시너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위 접근법을 취한 연구로는 Simeoni의 연구(Siméoni, Budnik, Avrithis, & Gravier, 2021)에서 pseudo labeling 및 pre-training 방법과 다양한 Batch Sampling 방식을 orthogonal하게 적용하여 관련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Simeoni의 연구는 각 방법을 Orthogonal 하게 구성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해 각 과정이 별개로 수행되어 계산량이 가중되었으며, 각 방법 간의 시너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Batch Sampling, Data Expansion, 더 나아가 Learning Model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앞서 WI-DL 연구(Wang et al., 2016)에서 Batch Sampling 간 Learning Model인 BNN의 결과를 재활용했다. 이처럼 각 방식들의 결과물을 재활용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계산과정없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선 Batch sampling과 BNN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Coreset과 Pseudo labeling의 연계 또한 확인할 것이다. Simeoni의 연구(Siméoni et al., 2021)에서 pseudo label을 통한 학습 과정 간 Batch 방식은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Random Samping의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하나, 이는 각 단계를 orthogonal 하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oreset은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Ren et al., 2021), 이를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계산없이 보다 정확한 pseudo label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Liu, P., Zhang, H., & Eom, K. B. (2016). Active deep learning for classification of hyperspectral images.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Applied Earth Observations and Remote Sensing, 10*(2), 712-724.

Ren, P., Xiao, Y., Chang, X., Huang, P.-Y., Li, Z., Gupta, B. B., . . . Wang, X. (2021). A survey of deep active learning. *ACM computing surveys (CSUR), 54*(9), 1-40.

Sener, O., & Savarese, S. (2017). Active learn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 core-set approach. *arXiv preprint arXiv:1708.00489*.

Siméoni, O., Budnik, M., Avrithis, Y., & Gravier, G. (2021). *Rethinking deep active learning: Using unlabeled data at model training.* Paper presented at the 2020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ICPR).

Wang, K., Zhang, D., Li, Y., Zhang, R., & Lin, L. (2016). Cost-effective active learning for deep image class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27*(12), 2591-2600.

Zhu, J.-J., & Bento, J. (2017). Generative adversarial active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1702.07956*.